

전통·미래가치 품다... 전주역사 신축 본격화

미래지향적 생태공간으로 새롭게 들어서
철도시설공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기존 한옥형 역사 연결 투명한 건물로 신축
주차장·편의시설 지하 배치로 개방감 'UP'
2021년 6월 착공·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



새로 신축되는 전주역사 조감도(아간).

단조로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전주역사(驛舍)가 미래지향적인 에코 스페이스(생태공간)로 새롭게 들어선다.

지난 2016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치권과 정부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시작된 전주역사 신축사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비 300억 등 총 450억이 투입되는 '전주역사 신축사업'의 밑그림이 될 국제설계공모에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Borrowed Scenery'가 선정됨에 따라 지은 지 38년이 경과해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 신축사업이 본격화된다.

'Borrowed Scenery'는 기존의 한옥형 전주역과 조화를 이루고, 넓고 쾌적한 이용객 편의시설과 사람중심의 공간,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가치를 담은 지상 4층 규모의 역사를 신축해 단순히 거쳐 가는 공간에서 머무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새로운 전주역사는 기존 한옥형 전주역사와 연결되는 투명한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어서 현 전주역사의 한옥을 감안 화폭 같은 외관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계안에 따르면 새로운 전주역사는 주차장과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광장을 차량 중심의 막힌 공간에서 사람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신축된다.

신축역사는 현 전주역사 뒤편의 철로 하나를 없앤 공간에 유리 등 투명한 소재로 지어지며, 기존 역사와 연결되는 1층과 2층은 철도 연구공간과 대합실 등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3층과 4층은 조정시설 등을 갖춘 문화공간과 전주시 홍보관 등 시민과 기차 여행객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이 설계작은 신축역사의 내부에 식물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투명한 소재로 외부마감재를 채택함으로써 개방감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 또 빛을 활용해 전주역사가 세계적 다른 색으로 보이도록 설계됐다.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주역사

설계공모작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전주역사 신축사업을 본격화해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오는 2021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6기 때인 지난 2016년 정치권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후 전주역사 전면개신사업은 이듬해인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주역사 시설개선사업타당성 용역과 국가예산 확보(10억원)를 거쳐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4월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가 총 450억원을 공동투자해 전주역사를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주역사 신축을 위해 지난 5월 31일에 공고를 시작으로 국내 철도역사 중 최초의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해왔으며, 최종 제출된 국내 13팀과 국외·국내 컨소시엄 8개팀 등 총 21팀의 작품에 대한 국내·외 심사위원 5명의 심도 있는 토론과 4차에 걸쳐 작품을 줄여나가는 블라인드 선정방식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수상작품을 최종 결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랜 열원의 호남의 관문 전주역 신축을 통해 문화와 교통, 시민들의 삶의 새로운 거점을 갖게 되었다"면서 "첫마중길 조성과 치마중권역 도시재생, 전주역 신축을 통해 더 전진답고 더 역동적인 전주의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현장업무 교육도 실시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이끌어갈 자원봉사자 '비비미'가 발대식을 갖는다.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선거현)는 지난 2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축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할 '비비미' 8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현장업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비미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및 향교일대에서 개최되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 현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안내 △비빔밥전설, 쿠키콘서트 등 행사 관련 메인행사 준비 지원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진행 지원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동하게 된다.

비빔밥축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행사 유니폼이 지급되고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전 기간 활동 완료 시에는 참여 증서와 기념품도 지급된다. 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의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축제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뛰는 자원봉사자들이 축제기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축제인 비빔밥축제를 성공으로 함께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완주군, 12개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은 지난 27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설공단, 지역 아동 대상 KCC 프로농구 무료 관람 행사

전주시설공단은 2019~2020 프로농구 개막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 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 KCC 이지스의 홈경기 일정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관람 인원은 한 경기 당 20명 이내다. 전주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전 선착순 우선 접수를 통해 선정한다. /송효철 기자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전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2023년까지 적용할 전주시의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전주시 평생학습 요구 조사결과 △평생학습 미래비전 및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도출 △향후 실천 과제별 추진내용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설정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균형 있는 전주시 평생학습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책임자인 권인택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날 △생애주기 학습체계 구축 △소통과 나눔의 시민 사회구성 △평생학습 추진 시스템 안정화 △사회경제형 일자리 창출 △창의 융합형 학습모델 개발의 5대 발전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송효철 기자

혁신도시 공공기관, 신선한 전주푸드 먹는다

시, 농식품부·전북도·완주군·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소비 확대 협약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주에서 생산된 신선한 전주푸드가 확대 공급된다.

전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완주군, 12개 전북혁신도시기관들은 27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로컬푸드 소비확대를 통한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로컬푸드 확산 실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등 상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관련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공공급식의 공급주체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주시 소재 이전기관 7개소를 직접 방문, 공공급식 공급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농수산대학에 전주푸드를 공급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왜냐하면 우리는'... 전주 구도심 수공예 활성화 박람회

작품 판매·전시 프로그램, 생태계 구축 위한 세미나 진행

전주에서 활동해온 수공예작가들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공예 활성화 박람회'를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에서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포크아트 △다종이인형 △도자기 △액세서리 △목공예 △가죽공예 △순뜨개 △페이퍼아트 △천연비누 △한지공예 △판공예 △실트 △패턴디자인 △리본공예 △실트스크린 등 총 26팀이 참가했다.

박람회 이틀간 △수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한 눈에 보고 구매할 수 있는 페어존 △참관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박람회 참가자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체험·전시존 △수공예 작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연대 등 강사가 진행되는 세미나 존 △박람회에 참여한 작가들이 서로 알아

고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존이 운영됐다.

특히 세미나존에서는 수공예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상품화하는 과정과 가격책정·대량생산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바람직한 공예작품 상품화 세미나'가 열렸다.

또한, 유튜브 인기 공예작가를 초청해 작업하는 과정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세미나'가 열려 인기를 끌었다.

김승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수공예 활성화 박람회를 통해 많은 수공예 작가들이 서로 협업·분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공예인들과 전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수공예 거점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 공간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수공예를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게, 이러한 활동들로 쇠퇴되어 있는 전주 원도심이 문화도시로서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jeonju_urban/221580662561)를 참고하면 되며, 원도심 수공예 작가 그룹인 '수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jeonjusoup)과 수공예 박람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Jeonjusoup/)에서도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북 새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전주시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종 주민센터를 통해 전북 새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인원은 80명으로, △서비스지원 및 DB구축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의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서 주소가 된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실질자와 실질자의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효철 기자

사업기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만 65세 미만 주 40시간(1일 8시간) 이내, 만 65세 이상은 주5시간(1일 3시간) 이내다. 근무조건은 시간당 8350원이 지급되며, 교통비 등 부대비용 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공공서비스 지원 및 환경 정화 등 한시적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질자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0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이 최근 전주기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 적극 지원·협조

예수병원, 기전대와 협약 체결

예수병원이 전주기전대학교와 산학협력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의 협력을 통한 서로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주기전대학교 2층 파바로소 카페에서 진행된 산학협력 협약식에서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과 전주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은 ▲전주기전대학교는 예수병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공급에 우선적으로 협조 ▲양 기관은 산학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예수병원은 전주기전대학의 응급상황 후송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 ▲양 기관은 서로

협력해 연구 활동과 기술정보의 교환,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산학협력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서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1900년에 설립된 전통의 명문 전주기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예수병원에서 많은 전주기전대학교 졸업생이 활약을 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산학협약을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